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3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9일 (음력 5월 26일) 월요일

Photo 漫評

국해(害)의원

20대 국회 24개월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단 한건의 법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간 처리된 대표 발의 법안이 0건인 의원들도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4일 20대 국회 2차년도에 처리된 발의법률안 167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따르면 지난 1년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해 처리된 대표 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이 무려 32명이었다.
초선의 경우에는 126명의 의원 중 8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법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선 의원 32명중 9명이 대표 발의법안이 하나도 없었다.
5선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6명의 의원 중 7명인 43.75%가 2차년도에 처리된 대표 발의 법률안이 한건도 없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글=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또 터진 기아차 직원 취업사기…실제 채용 여부 집중 조사

노조 전 부위원장, 29명 속여 19억여원 챙겨 도주

간부였던 점 주목…실제 취업 확인되면 수사 확대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이다 도주한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가 7개월만에 붙잡히면서 경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실제 취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 확인 될 경우 '조직적인 채용비리'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기아차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챙긴 뒤 도주한 혐의(사기)로 노조 전 부위원장 A(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노조 대의원으로 일을 하다 지난해 8월께 부지회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노조활동을 꾸준히 했던 점과 중요 위치에 있었던 점을 토대로 실제 취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의 소개로 취직이 이뤄졌을 경우, 돈을 건넨 피해자들도 입건하는 한편 사건을 회사 측의 주요 간부가 개입된 '조직적 채용비리'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공범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29명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기행각 초기에는 이웃과 단골식당 등 자신의 지인들을 상대로 취직을 알선했다.

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은 지인들이 돈 반환을 요구하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 동료였던 B(67)씨와 C(40)씨에게 취업 희망자를 소개 받기에 이르렀으며 소개비 명목으로 사례비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가 사행성 게임에 빠졌던 점에도 주목하고 도박 등으로 탕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드러난 사실만 인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취업사기가 아닌 구조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봉우 기자

끊이지 않는 기아차 직원들의 취업사기 행각

"자체적 자정노력 해야"

"기아자동차 취직은 인생 로또다. 노조 간부인 내가 취직 시켜 줄 수 있다"

취업 미끼로 거액을 챙긴 기아차 직원들의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구직자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직자 C(38)씨에게 접근해 "내가 기아차 노조 간부로 있으니 취업은 걱정말라"며 7000만원을 받았다. 또 "직원 이름으로 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며 2000만원을 더 뜯어냈다.

또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식당 주인의 아들이 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취직 시켜 주겠다"며 38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전달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취업난 속에서 자신 또는 자녀들의 대기업 취직에 희망을 가졌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사기 행각을 벌인 직원들은 피해자의 이런 심정까지 읽고 돈을 챙긴 뒤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었다"며 "간절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기아차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일 나주서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

300여명 구직자 참가…20개 기업서 54명 채용 예정

전남도는 오는 12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나주시와 공동으로 '2018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는 2016년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작한 행사다.

지난 2년간 46명이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인텍전기전자㈜, ㈜탑인프라, ㈜누리텔레콤, ㈜피앤씨테크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20개사가 5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3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한다. 기업에는 구인난 해소, 구직자에게는 전남 미래 유망 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현장면접·채용상담이 이뤄지는 기업채용관 20개, 유관기관별 취업컨설팅관 6개,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관이 설치된 부대행사관 4개 등 총 30개 부스를 운영한다.

이 외에 입주기업 소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 구직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형열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이번에 출범한 민선 7기 4년 동안 에너지 신산업 관련기업 1000개를 유치해 에너지밸리에 관련 연구소 등과 함께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입주기업들이 구인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하고, 지역 인재들은 미래 산업인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도록 해 활력있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